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3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6일 (음력 5월 23일) 금요일

‘서남해안 경관 샛길’ 추진...호남선 남행열차도

전남도, 목포·무안·신안군 연계 국토부 공모 프로젝트 선정

경관·자원 연계 길 잇고 다양한 이동수단 건강 여행코스 개발

전남도가 서남해 리아스식 해안과 섬, 갯벌 등을 연결해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는 '서남해안 경관 샛길'(Scenic Byway)을 조성할 추진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실행계획 용역' 공모 결과, 전남도와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이 연계협력한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는 3억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이다.

이 프로젝트는 항구도시 목포, 섬의 수도 신안, 국내 최대 갯벌을 보유한 무안의 자연·역사·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해 서남해안 대표 관광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름다운 경관·자원을 연계해 길(경관 샛길)을 잇고,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도보 등)으로 건강 여행코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해안일주도로, 자전거·도보 탐방로, 항·포구 재생 사업 등이 연계 추진된다.

미국 경관도로(America's Scenic Byway), 스위스 로발리타, 아일랜드 '타이더 타운', 일본 '오노미치 U' 등이 모델이다.

이를 위해 국도2호선 단절구간인 안좌도~비금도 구간(4.8km), 하의도~도초도 구간(3.2km), 자라도~장산도 구간(1.45km)을 연결해야 한다.

전남도는 총 사업비로 96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관기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8995억여

원, 모바일리 링크 스테이션 사업 429억원, 항포구 재생 사업 58억여원, 서남해안다목적 경관 경작 사업 47억여원 농어촌 경관 개선 사업 53억여원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 구상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는 호남선 남행열차 사업도 선정됐다.

목포시와 나주시, 무안군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광주~나주~목포 간 테마열차를 운행하고 역사 및 역전마을 재생사업으로 나주 로컬푸드 팩토리 조성 등이 있다. 실행 사업비는 119억원 규모다.

김정환 기자



구원투수?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개별 후보를 수습할 구원투수 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까지 검토하고 있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곳에서 이전 총재를 추천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후보군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40여 명의 후보군 중 5, 6명을 추천 위원회 논의가 끝나면 다음 주 안명 후보 발표에 장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구원투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장 악력과 강력한 카리스마를 이 전 총재의 장점으로 꼽는다. 한원의 인사는 "한국당이 언제 영입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가 이 전 총재가 이끈 2000년 16대 총선 공천이었다. 총재와 대선 후보를 여러 차례 한꺼번에 한해 당중진 중 이전 총재와 인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국종 아주대 외과과, 0점이 전 합계 재판관 등의 속내를 상상해본다.

신봉우·자료사진=뉴시스

‘장기 표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2차 공모

10년 넘게 장기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2차 공모가 실시된다.

1차공모 당시 민관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업규모나 참가자격 등 공모기준은 변경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오는 6일 제2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오는 9월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시민평가단과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받아 20일까지 회신하고 1차 공모 당시 사전절차였던 사업의향서 제출은 생략하기로 했다.

이번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 기준은 민관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업규모나 참가자격 등 지난해 12월 1차공모 때 기준과 동일하고 평가방법만 일부 보완했다.

공모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다수업체가 참여한 시에도 평가위원 평가결과 최저점수 85점 이상에 한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평가배점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사업계획서 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기준에 맞도록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한 휴양·문화시설 등의 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했으며 유원지(41만7531㎡) 개발사업의 상가시설 면적만 2만4170㎡로 제한했다.

서은홍 기자



이회창



이정미



이국종



“무더위, 여수 해수욕장서 날리세요”

여수시, 8개 해수욕장 내일부터 44일간 일제히 개장

“올 여름 무더위는 여수 해수욕장에서 날리세요”

여수의 해수욕장이 7일 일제히 개장한다. 여수시는 피서객들을 위해 오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44일간 5개 해수욕장과 3개 피서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방죽포 해수욕장, 거문도 해수욕장, 장등 해수욕장, 안도 해수욕장, 민성리 해수욕장 등이다. 피서지

는 무술목 피서지, 모시금 피서지, 웅천 해변 등이다.

시는 해수욕장 운영기간 인명사고가 없도록 인명구조자격을 소지자 40명을 안전요원으로 채용했다. 또 구명 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구조 장비 14대도 확보했다.

안전요원들은 개장 전 5차례에 걸쳐 수상오토바이와 보트 운전법,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교육 받았다.

시는 개장기간 여수해양경찰서, 여수경

찰서, 여수소방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기상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한 구명조끼 무료대여소가 운영된다. 또 돌산읍, 삼산면, 화양면, 민력동 등 해수욕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개장 전 마비지 청결 활동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여수의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정남진장흥 한국한우
Jeongnamjin Jangheung Korean Beef
값싸고 질 좋은 장흥한우